

# 1979년 보르헤스(Borges, 1899~1986)의 일본 방문과 문화교류, 번역 수용\*

楊아람\*\*

- |                              |                                 |
|------------------------------|---------------------------------|
| I. 들어가며: 환상문학 작가 보르헤스와<br>일본 | III. 보르헤스의 방일과 일본 인식, 신체적<br>장애 |
| II. 일본의 보르헤스 수용과 번역          | IV. 일본의 보르헤스 인식, 비/정치적 작가       |
|                              | V. 나가며                          |

## • 국문초록

이 글은 아르헨티나 작가인 보르헤스의 1979년 일본 방문과 일본 수용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일본에서 보르헤스 문학은 1950년 후반부터 번역되기 시작해 ‘전집’에 편입하면서 일본 독자들과 대면했다. ‘환상문학 작가’, ‘미궁의 작가’로 일본에서 알려진 보르헤스의 방일은 그의 문학뿐만 아니라 일본 인식을 고찰할 수 있는 문화적 이벤트였다. 보르헤스를 초청한 일본국제교류기금은 29일 일정으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보르헤스를 배려해 주로 휴식여행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그의 방일은 환상문학의 수용이면서 아르헨티나와 라틴아메리카 문학을 좀 더 대중화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요컨대 이 글은 일본의 보르헤스 초청사업을 통한 문화교류 및 확대, 일본의 보르헤스 번역 수용의 문화사적 의미를 다층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번역 문화사연구이다.

주제어 : 라틴아메리카문학, 『픽션들』, 불교, 실명, 정치

\* This work was supported by JST SPRING, Grant Number JPMJSP2125.

\*\* 나고야대학대학원 인문학연구과 일본문화학전공 박사후기과정

## I. 들어가며: 환상문학 작가 보르헤스와 일본

이 글은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의 선구자이자 환상문학 작가인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Jorge Luis Borges, 1899~1986, 이하 보르헤스)의 1979년 일본 방문(11.5~12.3)과 그 사회문화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보르헤스는 아르헨티나 출생으로 형이상학, 환상, 새로운 인식체계인 포스트모더니즘 경향의 단편집 『픽션들』(1944), 『알레프』(1949)를 쓴 라틴아메리카 문학의 대표적 작가이자 지식인이다. 보르헤스 문학은 아르헨티나보다 프랑스, 미국에서 먼저 그 가치를 인정받았고, 1961년 사무엘 베케트(Samuel Beckett)와 포뎬터상(Prix Formentor)을 공동수상 하면서 그는 세계적인 작가로서의 명성을 확립했다.

이런 저명 작가 보르헤스가 1979년 일본을 직접 방문했다.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진 작가가 일본에 방문한다는 것은 특별한 문화적 사건이었다. 그의 방일은 미국, 소련, 유럽의 강대국의 작가가 아닌 제3세계 유명 작가의 등장을 의미한다. 일본은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문화대국으로서의 성장을 꾀하고 있었다. 일본인은 제3세계 출신의 세계적 지성인 보르헤스에게 직접 일본에 관한 인식을 물어보며 일본의 훌륭한 아이덴티티를 인정받고 싶었다. 또한 이 당시 일본문학은 전후문학보다는 ‘개인’을 그리는 데 집중하였고 리얼리티를 그리는데 한계를 느낀 시기였다. 일부 일본문학자들은 새로운 문학경향을 찾아 대안으로 누보로망이나 보르헤스의 문학에 시선을 향하기도 했다.

보르헤스 방일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노야 후미아키(野谷文昭, 이하 노야)<sup>1)</sup>는 1979년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Mario Vargas Llosa)와 보르헤스의 방일로 일본과 라틴아메리카의 심적 거리가 줄어들고 이제까지 추상적 존재였던 라틴아메리카 문학을 구체적인 것으로 의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노야는 철저한 리얼리즘을 추구하고 정치적 성격을 지닌 바르가스 요사의 문학과, 반리얼리즘을 지향하고 정치적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 보르헤스의 다른 성향의 두 작가를 초대하면서 일본이 라틴아메리카 문학의 다양한 작가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지적한다. 영문학자인 도키 코지(土岐恒二, 이하 도키)<sup>2)</sup>는 일본에서 1950년대 이후 보르헤스 문학의

1) 野谷文昭, 「篠田他編『ラテンアメリカの文学』, 『ラテンアメリカ研究年報』5, 日本アメリカ文学学会, 1985, 67~75面.

수용이 번역, 라틴아메리카 문학, 보르헤스의 문학사상의 영역에서 이루어졌다고 논한다. 도키는 일본에서 보르헤스 작품 수용에서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을 번역가인 시노다 하지메(篠田一士, 이하 시노다)로 파악한다. 이 연구는 외국문학 수용에서 출판, 지명도를 우선 거론하는 연구들과 다르게 번역가의 영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처럼 일본 방문을 간단히 언급은 하지만, 방일의 문화사적 의미를 총체적으로 논한 연구는 없다. 특히 보르헤스의 일본 방문기를 모아 편찬한 『旅人への贈り物-ボルヘス日本滞在誌』 등 구체적 자료, 대담을 통한 보르헤스의 일본인식과 방일의 문화교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보르헤스는 시력을 잃고 전 세계를 다니며<sup>3)</sup> ‘구술’로 그의 문학을 설명해 왔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자’의 방문과 일본체험은 이례적이기도 하다.

아르헨티나의 대표적 지식인 보르헤스의 사유와 방일의 맥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의 이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보르헤스는 1899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아버지 호르헤 기예르모 하스람과 어머니 레오노르 아세베도 아에도 사이에서 두 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보르헤스에게 아버지는 특별한 존재였다. 보르헤스 아버지는 변호사로 책을 읽고 쓰는 것을 좋아했다. 어린 보르헤스에게 아버지의 서재는 놀이터였고 아버지는 아들이 작가가 되기를 바라며 글쓰기 연습을 시켰다.<sup>4)</sup> 보르헤스가 유럽문학과 유럽의 문화를 익힌 것도 아버지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유전적인 실명을 고치기 위해 1914년 유럽으로 가족 모두 이주했다. 보르헤스는 제1차 세계대전 때 스위스에서 학교생활을 하고 그 후 프랑스, 독일에서 체재했고 1919년 스페인에서 당시 전위적 작가, 시인과 교류했다. 1921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다시 돌아온 그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열기』(1923), 『심문』(1925), 『정면의 달』(1925)

---

2) 土岐恒二, 「日本におけるボルヘスの受容 (特集 生誕100年記念特集 ボルヘス) - (ボルヘス・シンポジウム)」, 『ユリイカ』 31(10), 1999.9, 142~145면.

3) 보르헤스는 1972년 미국을 시작으로 그가 죽기 전까지(1985) 여행을 했다. (부록 보르헤스의 여행 기록)에 의하면 미국, 스페인, 멕시코,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그리스, 이집트, 멕시코 등을 여행했고 일본 방문도 기록되어 있다. ジェイムズ・ウッダ, 平野幸彦訳, 『ボルヘス伝』, 白水社, 2002, 417면.

4) 박종혁, 「데리다와 보르헤스의 글쓰기」, 『중남미연구』 19(2),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2000, 141~151면.

등의 시집을 발표했고, 이후 『불한당들의 세계사』(1935), 『픽션들』(1944), 『알레프』(1949) 등의 단편소설집을 냈다. 보르헤스는 눈이 좋지 않아 1927년부터 총 여덟 번의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1956년에는 거의 실명에 가까워졌고 책을 더 이상 읽지 못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여행’, ‘구술’로 강연, 문학 활동을 계속한다.

그는 1937년에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립도서관에서 사서를 했으나 폐론을 비판하여 해고당했고 폐론 정권이 무너진 다음에 아르헨티나 국립도서관장으로 취임했다. 보르헤스는 1938년 머리에 입은 상처로 고열에 시달렸고 패혈증을 앓았다. 그는 건강이 돌아 왔을 때 지금까지 자신이 썼던 시나 에세이를 다시 써보고 실패하면 지적인 파멸이라고 생각했고, 이전까지 쓰지 않는 것을 쓰는 것으로 문학 활동을 시작한다. 1939년의 5월에 발표한 『『돈키호테』의 저자, 피에르 메나르』의 집필이 그 효시였다.<sup>5)</sup> 1941년에 8개의 작품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이라는 결실로 맺어졌다. 1944년은 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의 제1부로 하고 「기교들」이라고 이름 지은 제2부에 6편을 엮어 『픽션들』이 간행된다. 『픽션들』로 국가 문학상에 응모했지만 떨어져 동료 작가들이 잡지 『수르』<sup>6)</sup>에 특집 <보르헤스를 위한 격려>를 실어주기도 했다. 1949년 『픽션들』의 학구적이고 코스모폴리탄적 성격을 이어받아 그의 후반의 단편의 집성<sup>7)</sup>인 『알레프』가 간행된다. 1956년 보르헤스는 ‘아르헨티나 국립 문학상’을 수상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에서 영미문학을 가르치게 된다. 1961년에는 국제출판인협회가 수여하는 포멘타상을 사무엘 베케트와 공동수상하게 되면서 그의 문학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1980년에는 스페인 국왕이 직접 수여하는 세르반테스 상을 수상했다.

보르헤스의 문학은 ‘형이상학적’, ‘미로’, ‘거울’, ‘도서관’으로 연상되는 환상문학이고 그가 1930년대에 쓴 텍스트들은 198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문학비평으로 문학, 철학, 미술에 이르기까지 넓은 영향을 끼친다. 보르헤스는 작가의 글쓰기는 이미 존재하는 텍스트를 다시 읽는 행위로 끝이 없는 차연과 모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한다. 원(原)텍스트를 끊임없이 부정하는 그의 사상은 ‘중심’을 부정하는

5) J.L. 볼헤스, 鼓直訳, 『알레프』, 岩波書店, 2017, 237면.

6) 『수르』는 1931년 초에 계간지로 출발했다. 보르헤스는 당초부터 참여했지만 오감포는 보르헤스를 잡지의 주요 기고자이자 기획 전체의 조연자로서 생각했다. ジェイムズ・ウッダール, 平野幸彦訳, 『볼헤스伝』, 白水社, 2002, 150면.

7) J.L. 볼헤스, 鼓直訳, 『알레프』, 岩波書店, 2017, 247면.

포스트모더니즘의 맥락과 일치한다. ‘신’으로 여겨졌던 작가는 사실 이미 쓴 글을 따라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작가의 권위 약화와 작가의 죽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독자의 탄생을 의미한다.<sup>8)</sup>

이러한 삶과 문학을 추구한 보르헤스가 1979년 일본을 방문했다. 일반적으로 방문과 초청의 문화적 이벤트는 작가, 초청자, 독자, 연구자의 궁극증과 교감이 뒤엉키는 장(場)이다. 어떤 문화사적 풍경이 펼쳐지는 것일까. 그의 방일은 29일 일정으로 답사여행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대담은 일대일로 구성되어 있다. 초청을 한 국제교류기금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보르헤스를 배려해 주로 휴식여행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일본에서 이루어진 대담은 보르헤스의 문학과 일본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다.

요컨대 이 글은 1979년 보르헤스의 방일이란 문화적 이벤트를 통해 보르헤스 수용의 문화사적 의미를 다층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번역, 대담, 미디어를 매개로 방일 문화교류와 번역 수용을 구명(究明)하고 당대의 문화 인식과 지성사를 가늠하는 번역 문화사연구이다. 자료는 보르헤스 문학과 관련된 자료들, 일본체재기, 신문, 잡지, 해외에서 진행된 대담들을 참고했다. 보르헤스 문학의 번역과 학회의 활발한 활동, 일본방일에 대한 기사, 기고글, 대담집을 모은 『旅人への贈り物-ボルヘス日本滞在誌』는 보르헤스를 파악하는 데 귀중한 자료다.

## II. 일본의 보르헤스 수용과 번역

일본에서 보르헤스는 ‘환상문학’ 작가, ‘라틴아메리카 문학의 부흥을 이끈 작가’로 인식되고 있었다. 보르헤스는 1930년대 이미 ‘환상적 사실주의’를 제창한 작가로서 작품에 오늘의 현실과 함께 상상과 환상 신화의 세계를 상징 및 비유적인 요소로 등장시켰기 때문이다. 라틴아메리카 문학은 단순히 유럽소설을 모방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을 지나며 눈에 띄게 그 질이 향상된다. 라틴아메리카 문학의 붐이 서구에서

8) 이종득, 「보르헤스의 환상문학-서사구조에 나타난 자아의 존재 양태와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학이론」, 『인문과학연구』 7,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2, 65면.

9) 민용태, 「黃金期 맞은 中南美소설문학」, 『동아일보』, 1982.11.11, 10면.

일어난 것은 1960년대다. 보르헤스의 문학의 본질은 현실과 환상의 구별이 없어졌다 는 것이다. 그 문학은 객관적인 전개 방식에서 벗어나 인류의 문제를 미학적으로 구성한 것이었다. 이처럼 보르헤스 문학은 이미 ‘환상적 리얼리즘’로 알려져 있었고 그의 문학을 직접 접한 일본인들은 그가 그린 몽환, 미로, 환상을 새로운 문학으로 받아들였다.

일본 미디어가 보르헤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면 1950년대에는 ‘아르헨티나의 전위시인으로 동시대에 우수한 몽환적인 단편을 쓴 작가’,<sup>10)</sup> 1960년에는 유럽문학을 이어받으며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코스모폴리탄적 요소를 포착하는 작가<sup>11)</sup>이자 ‘가장 전위적이고 유럽 각국 문단의 칭찬을 받는 작가’<sup>12)</sup>로 소개하고 있다. 1970년대에는 ‘아르헨티나의 작가 보르헤스는 지금 유럽, 미국에 있어 금세기를 대표 하는 대작가의 한사람’<sup>13)</sup>으로 평가됐다. 이처럼 일본은 보르헤스를 유럽문학을 이어 받아 환상문학을 쓴 현시대의 최고의 작가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먼저 이 장에서는 보르헤스 문학의 일본 수용을 번역과 전집 간행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보르헤스 문학은 아르헨티나에서 일본으로 직접 수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나라를 통해서 수용되었는지 알아야 한다. 처음 보르헤스 문학의 가치를 알아본 것은 프랑스였다. 번역가 로제 카이와(Roger Caillois)는 보르헤스의 「죽지 않는 사람」을 불어로 번역해 『신프랑스평론(Nouvelle Revue Française)』(N.R.F)<sup>14)</sup>의 9호(1953년 9월)에 실었다. 「죽지 않는 사람」은 동로마제국의 군사행정 관 프라미니우스 루프스가 죽지 않는 물을 마시고 무한히 삶을 사는 괴로움을 다룬

10) 会田由, 「海外文学の一面 ラテン・アメリカ」, 『朝日新聞』, 1958.8.20, 夕刊 6面.  
 11) 増田義朗, 「現代ラテン・アメリカ文学—ボルヘスの活動に高い評価」, 『朝日新聞』, 1962.10.13, 夕刊 9面.  
 12) 「海外文化—ボルヘスの文学」, 『朝日新聞』, 1964.8.27, 朝刊 11面.  
 13) 「独自の世界を構築—ボルヘスとわたし」, 『朝日新聞』, 1975.2.23, 朝刊 10面.  
 14) 사르트르문학의 일본수용에 있어서 『신프랑스평론(Nouvelle Revue Française)』(N.R.F)을 언급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잡지를 통해 사르트르 문학을 번역해서 많은 일본인들이 그의 문학, 사상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신프랑스평론(Nouvelle Revue Française)』(N.R.F) 1937년 7월호에 게재된 「벽(Le Mur)」의 일본어역은 1938년 1월에 다이가도(大雅堂) 발행의 잡지 『時論』의 제1권 6-7호에 실렸다. 1938에 발표한 『구토(La Nausée)』의 발췌역도 거의 동시에 일본에 소개되었다. 시인이자 번역가인 호리구치 다이가쿠(堀口大學)는 1940년 『중앙공론』 1월호에 「벽」을 게재했다. 양아람, 「1966년 장 폴 사르트르(Jean-Paul Sartre)의 일본 방문과 일본의 사르트르 수용」, 『대동문화연구』 108,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9, 457면.

내용이다.<sup>15)</sup> 이 번역으로 보르헤스를 접하게 된 프랑스인들은 그의 문학을 적극 수용하기 시작했다. 보르헤스 문학을 수용해 구조주의 한계를 밝히면서 탈구조주의자가 된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 보르헤스 영향 아래 쓰였다는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말과 사물』은 그의 명성을 더욱 높여주었다.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보르헤스의 글쓰기와 창작방법은 존 업다이크(John Updike),<sup>16)</sup> 존 바스(John Barth) 등에 영향을 주었다. 프랑스와 미국의 비평가들은 보르헤스와 포스트모더니즘을 연결하여 연구했으며 미국 플로리다의 애틀랜틱대학 교수 낸시 케이슨 폴슨(Nancy Kason Poulson)의 저서 『보르헤스와 포스트모더니즘-움직이는 거울과의 유희』로 결실을 맺었다.<sup>17)</sup>

일본에서는 보르헤스의 번역이 시노다, 도키, 츠즈미 타다시(鼓直, 이하 츠즈미), 기무라 에이치(木村栄一, 이하 기무라)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보르헤스 대표작인 『전기집』, 『알레프』의 일본어역 초기 번역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은 시노다, 도키였다. 도키는 1990년대까지 『죽지 않는 사람』을 번역했다. 츠즈미는 보르헤스 대표작 이외의 작품(『브로디의 보고서』(1974), 『창조자』(1975),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열광』(1977)의 번역에 착수하며 보르헤스 문학의 다양함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 츠즈미의 제자인 기무라는 보르헤스 강연집 『ボルヘス、オラル』(1987), 에세이집 『ボルヘス・エッセイ集』(2013), 강연집 『語るボルヘス』(2017)을 주로 번역했다. 이런 점들을 검토해보면 보르헤스가 일본을 방문했을 무렵, 일본 독자는 주로 시노다의 번역본과 해설을 보고 보르헤스를 이해하고 있었다. 『죽지 않는 사람』을 처음 번역하고 전집의 해설을 주로 쓴 시노다는 “보르헤스는 잃어버린 생의 전체상을 회복하려고 단편소설에 모든 것을 걸었다. 단편소설이 픽션 그 자체이자 하나하나가 각각의 우주를 만든다.”<sup>18)</sup>고 해설했다. 그는 보르헤스의 문학이 언어우주, 환상 그리고 현실세계의 우의(寓意)를 중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sup>19)</sup> 그런데 시노다의 번역은 원어 완역이 아니었다.

15) 木村栄一, 『ラテンアメリカ十大小説』, 岩波書店, 2011, 35면.

16) 1965년 존 업다이크는 보르헤스의 대한 에세이를 『뉴욕커』에 발표하고 보르헤스를 문학을 황금향이라고 소개했다. ジェイムズ・ウッダール, 平野幸彦訳, 『ボルヘス伝』, 白水社, 2002, 23면.

17) 김홍근, 『보르헤스 문학전기』, 숲, 2005, 524면.

18) ボルヘス 篠田一士訳, 『ボルヘス一伝奇集/不死の人』, 『世界文学全集』34, 集英社, 1968, 343면.

19) 「20世紀の10大小説 篠田一士著(書評)」, 『朝日新聞』, 1989.1.9, 朝刊 15면.

번역가이자 평론가인 시노다는 「죽지 않는 사람」을 앞에서 언급한 『신프랑스평론 (Nouvelle Revue Française)』에서 처음 읽고 감명을 받아 일본어로 번역했다. 시노다는 이 소설을<sup>20)</sup> 번역해 동인잡지 『秩序(ORDO)』<sup>21)</sup> 제4호(1955년, 겨울)에 발표했다. 불어역이 1953년에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2년 만의 일본어 번역 출판이었다. 보르헤스가 1961년 포멘터 상을 수상한 후부터 본격적으로 보르헤스 문학번역 작업에 착수한 국가들이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일어 번역은 상대적으로 빠른 시도였다. 시노다는 1959년 자신의 첫 평론집인 『邯鄲にて』에도 보르헤스 「죽지 않는 사람」 번역을 실었다. 이 책에서 시노다는 1955년에 보르헤스 이름을 ‘요르케 루이스 보르헤스’로 잘못 번역한 것을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로 수정했으며 보르헤스 문학을 실어 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한 『秩序(ORDO)』 7호부터 동인이 된 독일문학자 가와무라 지로(川村二郎)는 보르헤스 작품 「八岐の園」의 독어역을 「シナの迷宮」<sup>22)</sup>으로 일본어 번역해 『文藝』 1963년 2월에 실었다.

이와 같이 보르헤스 문학이 유럽(프랑스, 독일)에서 번역되고 중역대 수용된 점이 일본 수용의 특징이다. 일본에서는 당시 스페인어학과가 없어 스페인어 직역을 할 수 있는 번역가와 연구자가 턱없이 부족했다. 프랑스, 독일어를 할 수 있는 (유럽어) 연구자들이 보르헤스 문학을 훨씬 접하기가 쉬웠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보르헤스 문학을 번역하면서 일본에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일본 자체에서는 제3세계의 자료를 구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보르헤스 문학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혹은 유럽 비평가들이나 저널리즘을 통해 유통되는 자료뿐이었다. 그래서 도키도 보르헤스 문학을 처음 번역한 시노다의 유럽에 대한 관심과, 유럽문학과 직결된 아르헨티나 문학이 프랑스를 경유한 점이 보르헤스 문학을 일본에 수용하게 된 계기라고 설명했다.<sup>23)</sup>

20) 같은 해(1955) 프랑스에서는 「죽지 않는 사람」을 가리마르사 《南十字星》叢書の 『迷宮』에 넣었다. 土岐恒二, 「日本におけるボルヘスの受容」, 『ユリイカ』 31(10), 青土社, 1999, 143面.

21) 『秩序(ORDO)』는 1949년 당시 도쿄대 학생이었던 마루야마 사이이치(丸谷才一), 나가야마 키미오(中山公男), 시노다 하지메가 만들어 1951년 10월에 제1호가 발간된 대학동인지이다. 그러나 계간이라고 하면서도 제3호가 1953년 4월, 제4호가 1955년 10월에 발행하는 실정이었다. 土岐恒二, 「日本におけるボルヘスの受容」, 『ユリイカ』 31(10), 青土社, 1999, 144面.

22) 가와무라는 독일어번역과 프랑스번역을 대조하여 잡지에 게재했다고 언급했다. 澁澤龍彦他, 『ボルヘスの世界』, 国書刊行会, 2000, 154面.

23) 土岐恒二, 「日本におけるボルヘスの受容」, 『ユリイカ』 31(10), 青土社, 1999, 145面.

〈표 1〉 일본 전집에 들어간 보르헤스 작품 『죽지 않는 사람(不死の人)』, 『전기집(伝奇集)』

책	번역연도	출판사	번역자	비고	원제
「不死の人」	1968.3	白水社	土岐恒二訳	新しい世界の短編 6	<i>El aleph</i>
「伝奇集」 「不死の人」	1968.6	集英社	篠田一士訳	世界文学全集 34	<i>Ficciones</i> <i>El aleph</i>
「伝奇集」	1975.4	集英社	篠田一士訳	現代の世界文学	<i>Ficciones</i>
「伝奇集」「エル・アレフ」「汚辱の世界史」	1978.5	集英社	篠田一士訳	世界の文学 9	<i>Ficciones</i> <i>El aleph</i> <i>Historia universal de la infamia</i>
「不死の人」	1980.11	白水社	土岐恒二訳	世界の文学	<i>El aleph</i>
「伝奇集」 「エル・アレフ」 「ブローディー의 報告書」	1984.7	筑摩書房	篠田一士訳	筑摩世界文學大系, 81	<i>Ficciones</i> <i>El aleph</i> <i>El informe de Brodie</i>
「伝奇集」	1984.9	集英社	篠田一士訳	ラテンアメリカの文学 / 綜合社編 제1권	<i>Ficciones</i>

보르헤스 수용을 보면 보르헤스가 쓴 원제를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일본식으로 바꾸어 번역하고 있다. 보르헤스의 「죽지 않는 사람」이 수록된 단편집 『알레프』는 시노다가 1978년 「엘 알레프」(슈에이사관 『세계의 문학』)로 수정하기 전까지 「죽지 않는 사람」으로 번역했다. 첫 번째 번역가인 시노다는 제목 번역을 수정했지만 도키는 여전히 1980년 하쿠스이사(白水社) 간행 세계문학전집에서도 『죽지 않는 사람』<sup>24)</sup>으로 실었다. 2000년대에 기무라<sup>25)</sup>는 『엘 알레프』로, 2010년에 들어와서 츠즈미가 단편집에서 『알레프』<sup>26)</sup>로 번역했다. 번역자와 시대별에 따라 보르헤스의 *El aleph*는 「죽지 않는 사람」, 「엘 알레프」, 「알레프」의 혼용된 제목으로 일본에 수용되었다.

24) 도키는 해석 부분에서 본서는 Jorge Luis Borges: *El Aleph*(Emecé Editions, 1957)의 전역이고, 번역한 제목 『죽지 않는 사람』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말했다. 볼헤스, 土岐恒二訳, 『白水社 世界文学 不死の人』, 白水社, 1980, 258面.

25) 볼헤스, 木村栄一訳, 『エル・アレフ』, 平凡社, 2005.

26) 볼헤스, 鼓直訳, 『アレフ』, 岩波書店, 2017.

또한 『픽션들』은 원제가 아닌 일본어역으로 『전기담』으로 번역 수용되었다.

다수의 일본인 독자들은 스페인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번역자의 노력 덕분에 읽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의미를 두었다. 제목 또한 일본어의 의미에 맞게 번역되었기 때문에 일본 독자를 배려한 측면으로 이해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번역의 질과 일관성, 통일성은 외국 문화상품의 온전한 수용과 향유를 논할 때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번역자 도키는 『죽지 않는 사람』을 개역하면서 엉터리 번역, 아르헨티나 문학에 대한 무지를 고백<sup>27)</sup>했다. 일본의 보르헤스 문학의 수용은 시기적으로 빨랐지만 질적으로는 번역의 일관성과 개역을 점검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전집책광고) 지금 유럽에서 압도적 인기! 라틴계의 걸작소설.<sup>28)</sup>

(전집책광고) 문학적, 신학적, 철학적, 역사적, 신화적인 대우주가 숨어있는 눈부신 환상의 세계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미궁 그 자체. 영원히 출구가 없을지도 모른다.<sup>29)</sup>

이번에는 보르헤스 문학의 수용에 큰 역할을 담당한 ‘전집 간행’에 대해 살펴보자. 세계문학전집 간행에서 보르헤스 문학의 존재는 세계문학으로의 인정, 아르헨티나 문학에 대한 관심,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한 자료이다. 중남미 소설이 세계로 발돋움한 것은 1940년이지만 중남미 소설이 붐을 일으킨 것 1960년대 이후이다. 일본은 1968년에 슈에이사(集英社)가 간행한 세계문학전집에 편입되는 것을 시작으로 1975년에 발행한 전집 『現代の世界文学』에도 들어갔다. 소설가 가와카미 히로미(川上弘美)가 1970년에 보르헤스를 접한 것은 대학도서관의 슈에이사판 『세계의 문학』이었다. 그는 전집이 유일하게 보르헤스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회고했다.<sup>30)</sup>

27) 볼헤스 土岐恒二訳, 「不死の人」, 『白水社世界の文学』, 白水社, 1980, 258面.

28) 볼헤스 篠田一士訳, 「ボルヘス—伝奇集/不死の人」, 『世界文学全集』 34, 集英社, 1968.

29) 볼헤스 篠田一士訳, 「ボルヘス—伝奇集/エル・アレフ/汚辱の世界史」, 『世界の文学』 9, 集英社, 1978.

30) 野谷文昭 編, 『日本の作家が語る ボルヘスとわたし』, 岩波書店, 2011, 2面.

일본에서 1975년 간행된 슈에이사판 『現代の世界文学』에는 보르헤스를 비롯해 마르케스, 알레호 카르펜티에르(Alejo Carpentier),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 로살레스(Miguel Ángel Asturias Rosales), 카를로스 푸엔테스(Carlos Fuentes) 등의 작품이 실렸다.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라틴아메리카 문학을 소개하기 이전에 대표작들을 선정해 독자와의 거리감을 좁힌 것이다. 보르헤스 방문 이후 1980년대에 들어가자 아르헨티나 보르헤스 문학을 넘어서 라틴아메리카 문학이 적극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했다. 이를 방증하는 것은 슈에이사판 라틴아메리카 문학 18권(1983~1984)의 간행이다. 라틴아메리카 문학 18권에서 첫 번째 수록된 작품이 보르헤스의 『전기집』이다.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Gabriel Garcia Marquez)<sup>31)</sup>가 1982년에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라틴아메리카 문학 18권이 다시 주목을 받았다.<sup>32)</sup> 보르헤스 문학이 전집에 수록된 것에 대해 노야는 일본의 독자가 라틴아메리카와 아르헨티나 문학이 매우 수준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sup>33)</sup> 1988년에는 보르헤스가 편찬한 세계문학 『バベルの図書館』(전30권)이 국서간행회(国書刊行会)에서 간행되었다. 이 책들은 독일문학, 영미문학, 중국문학을 수록하고 있으며, 출판사에서는 세계적인 문학자 보르헤스가 고른 세계문학이라고 중점적으로 광고<sup>34)</sup>했다. 일본에서 라틴아메리카 문학은 보르헤스를 시작으로 붐이 일었지만 더 이상 독자에게 읽히지 않는 시기가 온다. 라틴아메리카 문학의 흥망성쇠에 대해 츠츠미는 “1962년에 시작된 라틴 아메리카 문학의 붐이 1992년으로 끝났다고 생각한다. 마르케스, 요사, 푸엔테스를 능가할 재능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1992년이 지나면 기세가 없어졌다”<sup>35)</sup>고 말했다. 이제 일본에서 라틴아메리카 문학이 고전이 되어 독자와 대면하고 있다.

31) 노벨상 수상직후 마르케스의 신작을 실은 『新潮(新潮)』는 ‘절판’되었다는 점에서 일본 독자의 라틴아메리카 문학에의 관심을 엿볼 수 있다. 野谷文昭, 「篠田他編『ラテンアメリカの文学』, 『ラテンアメリカ研究年報』 5, 日本アメリカ文学学会, 1985, 71面.

32) 野谷文昭, 「日本におけるアルゼンチン文学の受容」, 『日本アルゼンチン交流史—はるかな友と100年』, 日本アルゼンチン協会, 1998, 292面.

33) 野谷文昭, 「日本におけるアルゼンチン文学の受容」, 『日本アルゼンチン交流史—はるかな友と100年』, 日本アルゼンチン協会, 1998, 291面.

34) 〈책광고〉 바벨의 도서관 30권 보르헤스 편찬/서문 거장 보르헤스 편집, 경이로움과 환상의 새 세계문학전집 1기 완결. 『ユリイカ』 21(3), 青土社, 1989.3.

35) 「法政大学教授・鼓直さん 「国内留学」で一休み」, 『朝日新聞』, 1995.5.22, 夕刊 13面.

즉 1979년 보르헤스 방문 무렵 가장 많이 라틴아메리카 문학이 소개되고 있던 시기였다. 주지하듯 일본에서 라틴아메리카 문학은 1970년대에 폭넓게 수용되었으며 그 작품 성향도 다양했다. 특히 보르헤스 소설의 정치적 성격과 유사한 ‘환상적 리얼리즘’(마법 리얼리즘)을 대표하는 작가는 쿠바의 알레호 카르펜티에르(Alejo Carpentier)였다.

이처럼 보르헤스 문학은 환상문학이라고 명명되면서도 환상문학집이 아니라 세계문학 전집의 형태로 보급되었다. 그러면서 다른 라틴아메리카 문학과 묶여서 배치되었다. 단행본보다는 주로 출판계의 전집 간행을 통해서 아르헨티나 문학, 라틴아메리카 문학을 대표하는 단편소설로 일본인에게 수용되었던 것이다. 보르헤스가 방문했을 때 이미 그는 세계문학 작가이자 라틴아메리카 문학의 대표 작가였다. 전집 간행과 더불어 일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 활동은 잡지의 ‘보르헤스 특집’ 구성이었다. 1960년대 말부터 『유리이카(グリイカ)』, 『우미(海)』, 『카이에(カイエ)』 등의 중요한 문예지에 보르헤스가 자주 거론되었고 특집을 만든 것도 그의 작품을 널리 알리는 것이 되었다.<sup>36)</sup> 『유리이카(グリイカ)』는 1989년 3월호에 특집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낳은 세계의 문학」을 실었으며 『유리이카(グリイカ)』 1999년 9월호는 「보르헤스 탄생 100주년 특집」으로 꾸며 보르헤스의 부인인 마리아 코다마의 강연 「보르헤스를 말하다」를 실었다. 이 잡지 두 권은 10년의 차이는 있지만 독자들이 보르헤스와 보르헤스 문학을 상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요컨대 일본인은 시노다를 통한 프랑스 중역을 통해 보르헤스 문학을 처음 접하게 된다. 하지만 대중독자들에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세계문학 전집을 통해서였다. 전집 수록은 일본인이 아르헨티나 문학, 라틴아메리카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 작가로서 인정하는 동시에 일본인의 세계문학 범주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미 인정받았지만 마르케스 등과 같은 라틴아메리카 작가의 노벨상 수상이 그의 문학적 위상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환상문학, 형이상학적 문학이라 불리는 보르헤스 문학이 지닌 난해함과 생소함,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은 전집의 해설이나 잡지에 실린 보르헤스 해설이 일부분 해소하는 역할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방일과 그 기록은 생경함을 더는데 기여했다. 이를 테면 1989년

36) 野谷文昭, 「日本におけるアルゼンチン文学の受容」, 『日本アルゼンチン交流史—はるかな友と100年』, 日本アルゼンチン協会, 1998, 287面.

『유리리카(ユリイカ)』에는 일본 신사에서 이야기하는 모습, 비석을 손으로 만지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있고 1999년 9월호에는 우치다(内田兆史)<sup>37)</sup>가 편집한 보르헤스 연보<sup>38)</sup>에서 1979년과 1984년 방일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일본에서 보르헤스가 수용되고 있을 때 작가가 1979년 직접 일본을 찾은 것이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일본은 방문한 보르헤스의 방일과정과 그의 일본 인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그에게 일본은 어떤 곳이었을까. 반대로 일본은 보르헤스의 방일을 통해 무엇을 접했을까.

### Ⅲ. 보르헤스의 방일과 일본인식, 신체적 장애

1979년 일본을 방문한 보르헤스는 약 한 달 간(11.5~12.3, 29일) 체재했다. 이 장에서는 신문, 미디어, 대담, 보르헤스 체재기를 담은 『旅人への贈り物-ボルヘス日本滞在誌』를 중심으로 보르헤스의 일본 인식을 논해보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일본이 보는 보르헤스에 대해 논할 것이다.

〈표 2〉 보르헤스의 방일 일정<sup>39)</sup>

날짜	내용
①1979.11.5	저녁: 신동경국제공항 도착(현재 나리타공항)
②11.6	오후: 도쿄 아르헨티나 대사 주최 점심식사에 참석 저녁: 샤미센(三味線) 연주 감상

37) 内田兆史, 「ホルヘ・ルイス・ボルヘス年譜」, 『ユリイカ』 31(10), 青土社, 1999, 228~233面.

38) 도키는 目黒聡子の 노작 「J. L. ボルヘス年譜・書誌」, 룩본기의 스트라이프하우스 미술관에 전시되었던 中村健二씨 소장의 보르헤스의 번역작품의 일람표는 그의 연대기적 기록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언급하고 있다. 土岐恒二, 「日本におけるボルヘスの受容」, 『ユリイカ』 31(10), 青土社, 1999, 142面.

39) ホルヘ・ルイス・ボルヘス 他 佐伯彰一・神吉敬三訳, 『旅人への贈り物-ボルヘス日本滞在誌』, 法政大学出版局, 1982, 179~184面.

③11.7	오전: 메이지신궁(明治神宮) 방문 오후: 국제교류기금 이사장 곤 히데미(今日出海) 씨 방문 저녁: 국제교류기금 환영 리셉션 참석
④11.8	오전: 아사쿠사(淺草) 산책 오후: 공동기자회견
⑤11.9	오후: 번역가 시노다 하지메(篠田一士)와 작가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 간담 저녁: 문예평론가 사에키 쇼이치(佐伯彰一), 국문학자 아키야마 켄(秋山虔)와 간담
⑥11.10	오전: 잡지 스바루(『昴』) 인터뷰 오후: 일본의 연출가이자 프랑스 문학연구자인 와타나베 모리아키(渡辺守章)와 함께 가부키(歌舞伎) 「本朝廿四孝」, 「素襖落」을 감상
⑦11.11	오후: 도쿄에서 나가노로 이동
⑧11.12	오전: 조라쿠지(長樂寺)부근 산책 오후: 쯤코지(善光寺)방문 저녁: 향토사가(郷土史家) 柳沢和恵 씨와 간담
⑨11.13	오후 나가노에서 교토로 이동
⑩11.14	오전: 난젠지(南禪寺)방문 오후 차도유파(茶道流派)중 하나인 우라센케(裏千家)방문
⑪11.15	오전 일본 황족 별장인 가쓰라리큐(桂離宮) 방문 저녁 기다유(義太夫)와 고우타(小唄)회「近松の女たち」감상
⑫11.16	오후: 도다이지(東大寺) 방문
⑬11.17	오전: 일본의 불교미술학자인 아리가 요시타카(有賀祥隆)의 안내로 호류지(法隆寺)방문 저녁: 영미연극학자인 기시 테츠오(喜志哲雄)와 간담
⑭11.18	오후: 노(能) 작품 감상
⑮11.19	오전: 엔라쿠지(延暦寺) 방문
⑯11.20	오전 리큐지(林丘寺)방문
⑰11.21	오전: 영문학자이자 보르헤스 작품번역자인 나카무라 켄지(中村健二) 안내로 다이슈인(大珠院)방문. 승려인 모리나가 소코(盛永宗興)와 간담 저녁 철학자 우메하라 다케시(梅原猛)등과 간담
⑱11.22	오전: 도예가 기요미즈 로쿠베(清水六兵衛)의 자택방문 오후: 비파(琵琶)연주감상
⑲11.23	교토에서 도바(鳥羽)로 이동(현재:미에)
⑳11.24	오후: 이세신궁(伊勢神宮) 방문

㉑11.25	오전: 이세만(伊勢灣)유람 오후: 도바에서 도쿄로 이동
㉒11.26	오후 마루젠서점(丸善書店)에서 서적구입
㉓11.27	오전: 센가쿠지(泉岳寺)방문 저녁: 잡지 『海』와의 인터뷰
㉔11.28	오전: 잡지 『ラテン・アメリカ時報』 인터뷰 오후: 잡지 『国際交流』 인터뷰 저녁: 箏曲(거문고) 연주 감상
㉕11.29	저녁: 토론(조치(上智)대학, 국제교류기금공동주최)에 출석
㉖11.30	오전: 일본 황태자 부부를 동궁어소(東宮御所)에서 뵈. 오후: NHK 인터뷰 저녁: 도쿄 아르헨티나 대사 주최 리셉션 참석
㉗12.1	휴식
㉘12.2	휴식
㉙12.3	오후: 곤 히데미 씨 주최 점심식사 출석. 저녁: 신도쿄국제공항에서 귀국

보르헤스는 일본국제교류기금의 <특별객원문화인초빙계획><sup>40)</sup>으로 일본에 머물렀다. 그는 이 초대를 받고 당시 비서였던 마리아 코타마와 일본어 연습을 하기도 했다.<sup>41)</sup> 그렇다면 보르헤스는 일본에 오기 전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보르헤스는 일본 관련 서적을 통해 일본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11세, 12세 때 라프카디오 한의 『유령의 일본』, 『괴담』, 『중국괴담』을 읽으면서 일본에 관심을 가졌으며, 일본 도착 후 1979년 11월 8일 도쿄 오쿠라 호텔 기자회견에서는 애스톤 경의 일본문학사와 『겐지모노가타리』를 영역본으로 읽었고<sup>42)</sup>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간행된 불교 서적과 선(禪)에 대한 스즈키 다이세츠(鈴木大拙) 씨의 책을 접했다고<sup>43)</sup>

40) Borges Jorge Luis 他, 「ボルヘスは語る-アルゼンチンの世界的文学者(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 『朝日ジャーナル』 22(9), 1980, 84面.

41) 「インタビュー マリア・ユダマ ボルヘスと私と日本人の父と」, 『すばる』 36(2), 集英社, 2014, 190面.

42) 「手帳」, 『読売新聞』, 1979.11.12.

43) 牛島信明, 「“偉大な旅人” ボルヘスー来日にあたって」, ホルヘ・ルイス・ボルヘス 他 佐伯彰

언급했다. 즉 말년에 선과 불교에 심취해있던 보르헤스는 초청 덕분에 어릴 때부터 관심을 가져온 일본과, 일본의 불교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국제교류기금에서도 이러한 보르헤스의 관심에 맞춰 방일 일정을 세웠다. 기존 저명 작가의 방일에서는 공식 일정이 많았지만 보르헤스는 80세의 고령이고 시력의 문제가 있어서 한 달의 절반 이상은 사적으로 시찰여행을 했다.<sup>44)</sup> 이때 그는 눈이 부자유로운 상황에서도 정원, 사원 등을 여행했다.<sup>45)</sup> 이는 자신의 불교에 관한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한 행보였다. 표에 제시한 <보르헤스 방일 일정>을 살펴보면 절 8곳(나가노: 長樂寺, 善光寺, 교토: 南禪寺, 東大寺, 延暦寺, 林丘寺, 大珠院, 도쿄: 泉岳寺)과 신궁(메이지, 이세)까지 합치면 10곳이나 된다. 또한 국제교류기금은 일본 문화에 관심 있는 보르헤스를 위해 일본전통문화인 차도(茶道), 노(能), 가부키(歌舞伎), 샤미센(三味線), 비파(琵琶), 동궁어소(東宮御所) 방문을 스케줄에 배치했다.

보르헤스: 가장 인상 남은 것은 불교의 스님과 이야기 할 때였습니다. 나는 태어나 처음으로 그런 분을 만난 것입니다.<sup>46)</sup>

반스톤: 일본에 있을 때 당신은 격식을 차려 명상을 수행하는, 매우 품위 있는 수도승들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어요.

보르헤스: 그곳 명상의 회두는 명상에 참여한 사람이 자신을 부처라고 여기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sup>47)</sup>

보르헤스는 그 무렵 『불교란 무엇인가』(*Qué Es El Budismo*, 1976)를 저술할 정도로 불교와 동양철학에 관심이 많았다. 일찍이 그는 1919~1921년 유럽에 거주 중 유럽에서 인도철학의 1인자인 쇼펜하우어<sup>48)</sup>와 ‘유럽의 석가’로 불리는 니체에 심취

一・神吉敬三訳, 『旅人への贈り物—ボルヘス日本滞在誌』, 法政大学出版局, 1982, 20面.

44) 「「情熱と夢カベンを走らせる」—ボルヘス氏を囲んで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 『東京新聞』, 1979. 12.5.

45) 「いい夢想家にと努力 予想越えた来日の成果」, 『朝日新聞』, 1979.11.16, 夕刊 5面.

46) ホルヘ・ルイス・ボルヘス, 「対談 旅人への贈り物」, 『国際交流』 23, 国際交流基金, 1980, 3面.

47) 이 인터뷰는 1980년 3월 시카고대학교에서 열렸다. 인터뷰어는 윌리스 반스톤이었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윌리스 반스톤, 서창렬 역, 『보르헤스의 말-언어의 미로 속에서, 여든의 인터뷰』, 마음산책, 2015, 200면.

하면서 동양사상을 접하게 된다. 보르헤스는 불교를 ‘탐구의 대상으로 삼아 공부를 했으며 종교의 형이상학에서 환상문학성을 발견한 것이다.’<sup>49)</sup> 또한 보르헤스의 불교 연구는 그의 하이쿠 창작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고 있다.<sup>50)</sup> 보르헤스는 특히 말과 문자에 의존하지 않고 수행하는 것을 중시하는 선불교에 관심이 많았다. 이런 맥락에서 그가 생략, 암시, 여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하이쿠에 관심을 보인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보르헤스에게 일본에서 직접 불교를 수양하는 스님과 대화하고 수도승들의 수행과정을 보는 체험은 큰 의미가 있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는 문답을 통해 깨달음을 이어간 것이다. 명상하며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는 수행법은 전형적인 동양의 선불교의 한 양식이었다.

스기야마(杉山晃): 보르헤스 씨는 활발하게 여행을 하십니다. 무례한 질문이지만 눈이 자유롭지 않고 80세의 고령인 나이와 관계없이 미국, 유럽, 중남미 여러 나라에 자주 가십니다. 이번에는 아르헨티나와 딱 지구의 뒤편에 있는 일본까지 오셨습니다. 여행에 대한 큰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는 숨겨진 발견과 만남을 오로지 추구했다고 추측합니다. 보르헤스 씨에게 여행은 어떤 의미입니까?

보르헤스: 눈이 보이지 않게 된 이후 자주 여행을 갑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행의 즐거움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눈이 보이지 않지만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sup>51)</sup>

48) 특히 보르헤스는 쇼펜하우어에 관심이 많아 쇼펜하우어를 읽기 위해 직접 독일어 공부를 하기도 했다. 스기야마: 보르헤스 씨는 불교 이외에도 기독교, 유대교, 힌두교, 회교, 도교 등에도 상세합니다. 거기에 스피노자나 쇼펜하우어를 비롯해 동서고금의 철학자나 사상가도 읽으셨습니다.

보르헤스: 그렇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경우는 어떻게 해서라도 원문을 읽고 싶어서 독일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쇼펜하우어에 저는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迷宮の森をさまよって』, 『海』 12(2), 中央公論社, 1980, 265면.

49) 김형민, 「보르헤스와 종교-『픽션들 Ficciones』을 중심으로」, 『중남미연구』 19,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2000, 140면.

50) Hagomoto, Koichi, 「BORGES AND JAPAN」, *Chasqui*(44), revista de literatura latinoamericana, 2015, p.210.

51) 杉山晃, 「ボルヘス氏に聞く」, 『旅人への贈り物-ボルヘス日本滞在誌』, 法政大学出版局, 1982, 41~44면.

리타 길버트: 시력의 상실이 당신의 삶과 작품에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보르헤스: 아버지 쪽으로 나는 시력을 잃은 다섯째 혹은 여섯째 세대에 해당합니다. 난 한 번도 시력이 좋았던 적이 없었으며 내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수술을 여러 번 받았지만 1955년 혁명 정권이 나를 국립도서관장으로 임명했을 때 난 이미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눈이 먼 것이 내 ‘작품’에 영향을 끼쳤음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시력을 잃었을 때 시간이 다른 방식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에는 30분간의 기차 여행을 할 때 마치 그 여행이 영영 끝나지 않을 것처럼 무엇인가 읽거나 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반면, 지금은 필연적으로 내 삶에서 고독의 시간이 존재하기에 나는 혼자 있는 것에 그리고 아무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익숙해졌으며 혹은 단순히 아무 생각도 안 하기도 합니다. 사는 것 같이 않게 산다고 할 수 있지요. 나는 시간이 흐르게끔 그냥 내버려두었는데, 그것이 내게는 마치 다른 방식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것이 더 빠른 속도로 흐르는지는 모르겠으나 더욱 감미롭게 더욱 응집되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sup>52)</sup>

일본 스님과의 대화가 그랬듯이 사실상 맹인인 그가 일본인과 소통한 것은 ‘시각적’인 것이 아니라 ‘청각적’인 것이었다. 그럼에도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오감을 통한 직접 체험을 크게 제한한다. 보르헤스는 라틴아메리카 문학자 스키야마와의 대답에서 눈이 보이지 않지만 여행을 자주 간다고 말하며 그는 여행을 ‘느낀다’고 말했다. 보지 않고 느낀다는 그에게 스키야마는 눈의 실명이 그의 가치관이나 문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문하지 않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간다. 다른 서양문학자와 달리 신체적으로 부자유한 보르헤스의 방문과 소통은 초청자에게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사적인 것을 조심하는 일본의 문화가 대화를 어렵게 하는 것이다.

그와 달리 1994년도에 보르헤스와 미국에서 대면한 리타 길버트(스페인어판 『라이프』지의 리포터)는 시력의 상실과 삶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을 한다. 보르헤스는 실명은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쳤고 특히 그의 시간관념에 영향을 주었다고 이야기한다. 그의 신체적 부자유는 ‘다른 방식으로 흐르는 시간’을 창조할 수 있게 했고 ‘시간이나 인과관계의 흐름, 기대된 논리도 폐기’<sup>53)</sup>한 소설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52) 김춘진, 『보르헤스』, 문학과지성사, 1996, 282~284면.

53) 한스 벨테스·조우세프 나토리編 土田 知則他 4 訳, 『キーパーソンで読むポストモダニズム』, 新曜社, 2005, 101面.

정원』으로 표현되었다. 이 소설은 한 중국인이 백 년 전에 쓴 원환적인 책, 창조된 정원, 과거와 미래, 무한한 미로를 이야기한다. 이처럼 보르헤스의 시력 상실은 그의 문학 활동에 영향을 주었다. 보르헤스에게 있어 구술은 그의 문학을 말하는 하나의 수단<sup>54)</sup>이었고, 알고 있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했다. 알베르토 망겔(Alberto Manguel)의 회상에 따르면 그는 경이적인 기억력의 소유자<sup>55)</sup>였고 눈이 보이지 않는 대신 ‘청각적’, ‘촉각’, ‘후각’을 기억함으로써 그는 문학에 대한 열정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는 일본을 누군가에게 ‘청각적’으로 듣고 기억하고 사유하며 일본 문화를 느꼈던 것이다. 하지만 일본인은 눈과 문학의 관계를 논하지 않아 방문 당시 그의 생각이 일본인에게 전해지지 않았다.

나카무라 겐지(中村健二): 오스카 와일드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일본은 호쿠 사이(北齋)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르헤스 씨는 일본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보르헤스: 제가 일본에 오기 전에는 일본이라는 것은 나에게 어디까지나 문학을 통해 안 일본, 세이쇼 나곤(清少納言), 무라사키 시키부(紫式部)의 세계, 불교, 그리고 라프가디오 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도착해보니 저는 고전적 일본이 아닌 매우 현대의 살아있는 일본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오래된 것과 새로운 현대가 과거의 시간의 흐름을 흡수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sup>56)</sup>

이처럼 일본인과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보르헤스는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었던 일본의 이미지를 결합하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일본에 대한 앎을 확장해갔다. 영문학자인 나카무라와의 대답에서 방일 후 보르헤스는 자신이 책을 통해 알던 ‘일본’과는 다른 ‘현대적인’ 일본을 경험했다고 소회한다. 현대적 일본은 서양과 동양,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도시였다. 아르헨티나 출생으로 정치학 박사인 마츠시타는 서구문명에 무한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보르헤스가 일본이 서양의 근대기술을 받아

54) 杉山晃, 『ラテンアメリカ文学バザール』, 現代企画室, 2000, 38面.

55) 그는 모든 것을 기억했다. 그는 그가 쓴 책들의 복사본이 필요하지 않았다: 비록 그는 그것이 잊혀진 과거의 것이라고 가정했지만, 그는 그의 기억 속에서 모든 자신의 글쓰기를 암송하고, 정정하고, 바꿀 수 있었다. Alberto Manguel, *WITH BORGES*, Telegram, 2006, p.33.

56) ホルヘ・ルイス・ボルヘス, 「対談 旅人への贈り物」, 『国際交流』23号, 国際交流基金, 1980, 2~3面.

들여 서양보다 더 고도의 능력을 만들어 냈다는 것에 감탄<sup>57)</sup>했다고 언급한다. 또한 보르헤스는 방일 해보니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일본이 부유한 나라라고<sup>58)</sup> 하면서 “중국문화의 동화, 서구문화의 흡수, 빛나는 전통을 가진 ‘일본이 문화를 구제하는 힘’<sup>59)</sup>이 있다고 조지대학에서 열린 패널 디스커션에서 말한다. 보르헤스가 방일한 1979년 무렵 아르헨티나는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다. 1976년 쿠데타로 집권한 비델라 군사정권은 중화학공업 육성책을 본격화하면서 자본과 수입자유화를 실시하여 외채가 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군사정권은 노조를 탄압하고, 노동지도자 구속했으며 긴축정책의 결과로 1976년에서 1980년 사이에 실질임금이 반으로 줄어들고 구조적 실업이 23%에 달했다.<sup>60)</sup> 아르헨티나의 경제사정은 어려운데 현대화된 일본은 자신에게 29일간의 숙식과 경비를 지불할 정도로 여유로운 국가였던 것이다.

또한 보르헤스는 일본의 문화에는 중국의 그림자가 있다고 말한다. 방일 후 1980년 3월 인디애나 대학에서 호르헤 오클랜더(Jorge Oclander)의 대담에서도 보르헤스가 “나는 한 달간 일본을 방문했는데 일본에 늘 중국의 유령이 깃들어 있는 것을 느낍니다. 서양인이 그리스를 느끼듯이 말이죠.”<sup>61)</sup>라고 말한다. 1980년 3월 시카고대학에서 열린 반스톤과의 대담에서도 일본에 “두 개의 문화, 즉 우리 서구 문화와 중국문화의 선명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서양은 극동에 의해서 특히 일본에 의해서 구원될 것입니다.”<sup>62)</sup>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발언은 사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어서 당혹스럽지만 보르헤스가 방일 후 일본 문명을 서구, 문화는 중국문화와 견주어 이야기 하는 사고방식을 이색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서양과 그리스의 구도를 일본과 중국의 관계에 견주는 것으로 보아 일본문화의 원류를 중국으로 간주하는 태도가 확인된다. 보르헤스가 일본을 높게 평가한 것은 서구의 문명을 발전시킨 일본경제와, 중국과

57) 松下マルタ, 「ボルヘスと日本」, 野谷文昭, 「日本におけるアルゼンチン文学の受容」, 『日本アルゼンチン交流史—はるかな友と100年』, 日本アルゼンチン協会, 1998, 297면.

58) 「いい夢想家にと努力 予想越えた来日の成果」, 『朝日新聞』, 1979.11.16, 夕刊 5면.

59) Borges Jorge Luis 他, 「ボルヘスは語る-アルゼンチンの世界的文学者(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 『朝日ジャーナル』 22(9), 1980, 85면.

60) 이영조, 「아르헨티나의 민주화와 경제개혁 지배연합의 변화를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 8,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1995, 111면.

61)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윌리스 반스톤, 서창렬 역, 『보르헤스의 말-언어의 미로 속에서, 여든의 인터뷰』, 마음산책, 2015, 35면.

62) 위의 책, 200면.

서구의 문화를 받아들여 나아간 문화혼종의 역량이었던 셈이다.

스기야마: 방일하신지 거의 3주간이 되어갑니다. 일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르헤스: 모두 매우 친절하고 예의가 바릅니다. 도덕과 윤리를 중시하는 기풍이 사회 전 체에 침투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라틴아메리카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기야마: 나가노, 교토, 나라에 다녀오셨지요?

보르헤스: 덕분에 제가 더 풍부해졌다는 기분이 듭니다. 도다이지(東大寺)의 대불전도 방문했습니다. 모두가 안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옷거나 즐겁게 들떠있었기 때문에 매우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63)

이러한 점을 기반으로 보르헤스는 일본인을 친절하고 예의가 바른 사람으로 묘사하고 일본문화는 “도덕과 윤리를 중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미는 윤리성이 전혀 없지만 일본인은 매우 윤리성이 높은 나라라고 말했다. 이에 나카무라는 “일본인이 윤리관이 강한 것은 아마 기본적으로 ‘수치’의 감각”<sup>64)</sup> 때문인지 질문한다. 나카무라는 ‘수치’의 개념은 『국화와 칼』을 쓴 루스 베네딕트가 알려준 개념이라고 말하며 답변을 기대한다. 그러나 보르헤스는 『국화와 칼』은 읽어 본 적이 없으며 ‘국화와 칼’이 의미하는 것은 일본의 심미안의 추상이라고 대답한다.

나카무라는 자신이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자신 혹은 일본이 “외국인의 평가를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나카무라는 “일본인들은 자신들에게서 자신들의 좋음을 발견하는 것보다도 대개 외국인이 그러한 점이 좋다는 것을 말해주면 깨닫게 되는 면”이 있다고 말하면서 보르헤스가 자신의 문화를 더욱 칭찬해 준다면 일본인들은 훨씬 더 자부심을 가질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특히 이 인터뷰는 보르헤스를 초대할 일본국제교류기금 잡지에 실리는 인터뷰였기 때문에 질문자는 ‘보르헤스가 보는 일본의 좋은 인상’에 신경 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보르헤스는 일본인들이 그런 것을 신경 쓰는지 몰랐다고 말하면서도 ‘일본인’에 대해 더 이상의 칭찬이나 발언을 하지

63) 杉山晃, 「ボルヘス氏に聞く」, 『旅人への贈り物—ボルヘス日本滞在誌』, 法政大学出版局, 1982, 41~42面.

64) ホルヘ・ルイス・ボルヘス, 「対談 旅人への贈り物」, 『国際交流』 23, 国際交流基金, 1980, 9面.

않았다.

일본을 방문하고 대면한 그의 속마음은 다른 곳에서 나타났다. 1980년 3월 인디애나대학에서 열린 대담에서 보르헤스는 일본인들은 “사생활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나 또한 사생활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sup>65)</sup>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인들은 ‘맹인’이라는 말을 언급하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워 했다. 눈을 거론하지 않으면 보르헤스가 느끼고 영유하는 삶과 일상, 문학세계를 제대로 문답할 수 없다. 그는 일본을 예외의 나라라고 했지만 그 예외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정치에 대한 대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교문학연구자인 사에키 쇼이치(佐伯彰一)가 보르헤스에게 정치에 관해 질문했을 때 그는 “노 폴리티크스”<sup>66)</sup>라는 말만 하고 다음 화제로 넘어간다. 이와 달리 미국에서는 이 역시 솔직하게 드러냈다.

요컨대 보르헤스 입장에서는 국제교류기금에서 초청을 받아 온 입장에서 일본(인)에 대해 좋게 말해야 한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가졌을 테지만 말을 많이 아꼈다. 결국 보르헤스와 일본의 대담자들은 보르헤스가 지닌 가치관과 삶의 여정 등을 제대로 끌어내지 못했다. 초청자와 방문자의 이러한 소통의 어려움은 ‘신체적 장애라는 특수성’과, ‘세계적 저명 작가의 장애와 사생활을 묻는 것을 곤란해 하는 일본문화’에서 기인했다. 보르헤스가 일본에 오긴 했지만 사실상 눈이 거의 안 보여서 주위의 안내자를 통해 재교육을 받은 셈이기 때문에 보르헤스만의 새로운 평가나 주체적인 인식 형성에도 한계가 있었다. 그렇기에 더더욱 다른 감각을 활용한 체감의 방식이나 내용에 관한 대화가 필요했다. 미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이 점이 실패했다. 보르헤스가 사생활을 지적한 것처럼 일본인이 스스로 대화를 한정지으면서 좀 더 본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일본 신좌익의 혁명운동이 퇴조하고 탈정치화가 진행되던 일본에서 80대의 장애인 보르헤스가 동양적 선이나 불교에 관심 갖는 작가로 주목된 것은 자연스럽다. 좌파의 정치적 성격이 강한 라틴아메리카의 작품들도 다수 수용되는 문화사적 배경에서 보르헤스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보수성을 띤 포스트모던

65)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윌리스 반스톤, 서창렬 역, 『보르헤스의 말-언어의 미로 속에서, 여든의 인터뷰』, 마음산책, 2015, 19면.

66) 佐伯彰一, 「ボルヘスとの一夜」, 旅人への贈り物—ボルヘス日本滞在誌, 法政大学出版局, 1982, 165面.

문학자로서 수용될 수 있는 입지가 있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쿠바의 알레호 카르펜티에르가 보르헤스 소설의 정치적 성격과 유사한 ‘환상적 리얼리즘’(마법의 리얼리즘)을 대표하는 작가로서 수용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일본지식인들은 보르헤스에 대해 어떻게 인식했을까.

#### IV. 일본의 보르헤스 인식, 비/정치적 작가

보르헤스는 시, 단편소설, 에세이를 썼고 이 중에서 일본에 가장 많이 번역된 것은 『전기담』, 『알레프』였다. 이 작품을 통해 스페인 문학자인 우시지마 노부아키(牛島信明)는 “<미궁의 작가>, <기담작가>, <형이상학적 언어세계의 구축자>, 해박한 학식을 구사하는 <지식의 공장> 등이 보르헤스의 속성을 나타내는 대명사로서 여겨지며 냉철한 상상력의 환상작가로 클로즈업”<sup>67)</sup> 된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보르헤스의 단편 중 어떤 작품이 일본지식인들에게 관심이 있었을까. 『ボルヘスの世界』에서 16명의 일본지식인이 <내가 좋아하는 보르헤스 작품>이라는 제목 하에 보르헤스 작품 3개씩을 골랐다. 여기서 가장 많이 언급된 작품을 살펴보면 ①「죽지 않는 사람」(8명), ②「틀린, 우크바르, 오르비스 테르티우스」(5명), ③「바벨의 도서관」(4명)이었다. 여기서 「죽지 않는 사람」이 많이 언급된 것은 일본에 처음 번역된 작품이라는 상징성 그리고 『알레프』의 첫 작품이기 때문이다. 시인 이리사와(入沢)는 시노다로 인해 보르헤스를 알게 된 흥분을 여전히 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가와무라(川村) 또한 시노다 번역을 읽고 ‘눈이 핑 돌 것 같은’ 감동을 받았다.

이러한 상징성과 별개로, 보르헤스회의 10회분의 강연 모음집인 『日本の作家が語るボルヘスとわたし』에서 일본작가 10명 중 6명이 언급한 작품은 「바벨의 도서관」이었다. 보르헤스 방일 후 조치대학에서 열린 패널 디스커션에서 기요미즈가 「바벨의 도서관」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했고, 이마후쿠 류타(今福龍太)는 그의 저서 『ボルヘス 伝奇集—迷宮の夢見る虎』에서 전체 7장 중 3, 4장(65-122면)을 할애해 「바벨의 도서관」에 대해 논했다. 이마후쿠는 “바벨의 도서관은 우리들의 공간적, 시간적 상상

67) 辻邦生, 『ボルヘスを読む ラテンアメリカ文学叢書 13』, 国書刊行会, 1980, 86면.

력에 무한한 영감을 주고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에 이르는 모든 근원적인 사고를 유발하고 동서고금의 사상가, 작가, 예술가의 창조를 이끌어낸 주옥과 같은 단편”<sup>68)</sup>이라고 강조했다. 보르헤스의 많은 단편 중 「바벨의 도서관」이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바벨의 도서관」은 어떤 내용일까?

각 육각형의 진열실의 벽에는 책장이 다섯 개씩 비치되어 있다. 각 책장에는 똑같은 크기로 된 서른 두 권의 책이 꽂혀 있으며 각 책은 410페이지이다. 각 페이지는 마흔 행으로 되어 있고, 각 줄은 팔십여 개의 검은 글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각 책의 책등에도 글자들이 있다. 이 글자들은 책의 내용을 지시하거나 예시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불일치가 한 때 이상하게 보였다는 사실을 안다. 그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을 전하기전에(결과는 비극적이지만, 그 발견이야말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사건일 것이다) 나는 몇 가지 원리를 떠올리려고 한다.<sup>69)</sup>

무한한 책을 정리한 도서관에 관한 이야기를 말한 「바벨의 도서관」은 해박한 지식과 상상 외의 이야기를 전개하며 독자를 매료하고 명상하게 만든다.<sup>70)</sup> 이 도서관은 “모든 언어들뿐만 아니라, 이미 멸망했거나 앞으로 멸망할 언어들까지도 포함”<sup>71)</sup>하고 있고 근원 중의 근원인 책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 책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거울로 비쳐진 것 같은 똑같은 열람실 열거, 미로처럼 끝없이 이어진 책장이 있다. 이곳에서 모든 지식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도서관에 들어오지만 그들이 느끼는 것은 ‘혼돈’과 ‘당황’이다. 사람들은 당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걸음을 하지만 평생 책을 읽어도 결국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뿐이다. 게다가 하나의 책을 읽으면 더 자세한 지식을 흡수하기 위해 계속 읽어야 하는 지적 갈증이 인간의 한계를 드러낸다. 도서관은 답을 찾는 ‘희망’의 장소이자 끝이 없고 결국 찾을 수 없다는 ‘절망’을 상징한다.

68) 今福龍太, 『ボルヘス『伝奇集』: 迷宮の夢見る虎』,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9, 65面.

69)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송병선 역, 「바벨의 도서관」, 『픽션들』, 민음사, 2011, 99면.

70) J.L.ボルヘス, 篠田一士, 内田吉彦, 木村栄一, 野谷文昭, 鼓直訳, 『集英社ギャラリー「世界の文学」19 ラテンアメリカ』, 集英社, 1990, 1299面.

71) 민원정, 『보르헤스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카발라신비주의』, 한국학술정보, 2007, 20면.

기요미즈: 이리사와(入沢康夫) 씨와 제가 매우 관심이 갔던 작품은 「바벨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는 것과 쓰는 것의 메타포로 읽었지만 「바벨의 도서관」의 구조자체가 문학이 가지고 있는 시간성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보르헤스: 「바벨의 도서관」에 관한 질문이네요. 시간은 철학적으로 정말 본질적인 수수께끼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들이 시간과 공간의 문제를 생각했을 때 공간이 없는 세계를 생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는 세계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sup>72)</sup>

인용된 대답은 「바벨의 도서관」에서의 ‘시간’에 대한 보르헤스의 생각을 묻는 대목이다. 보르헤스는 “오래된 책을 읽는 것은 그것이 써진 날부터 현재까지 경과한 모든 시간을 읽는 것”<sup>73)</sup>이며 “연속되는 시간은 단일한 것이 아닌 다양한 종류가 존재”<sup>74)</sup> 한다고 말한다. 도서관에는 이미 다양한 시간이 존재한다. 도서관의 책들은 과거부터 축적된 지식으로 과거와 현재를 잇고, 그 책을 읽는 사람은 현재와 과거를 잇는 존재이다. 바벨의 도서관은 과거-현재와, 현재-과거를 도는 ‘원순환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소설가 다와다 요코(多和田葉子)는 이 소설의 시간에 대해 “바벨 도서관의 태엽과 같은 계단도 무한하고 주기적인 것이고 이 시간도 일직선이 아닌 소용돌이가 되어있는지도 모른다.”<sup>75)</sup>고 말한다. 보르헤스에게 시간은 일직선상이 아니다. 순환적 시간의 설정은 다양한 시간 속에서 인간의 한계, 인간의 행동을 다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바벨의 도서관」에서 보여주는 ‘미로’, ‘혼돈’, ‘시간’, ‘책’은 보르헤스적 세계를 암시한다. 소설가이자 프랑스문학자인 츠지 구니오(辻邦生)는 “보르헤스를 읽는 즐거움은 책에 주위를 둘러싼 서재를 가진 상징적인 쾌락”<sup>76)</sup>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쓴 단편들 속에서 보르헤스적 세계를 한 번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방대한 지식과 응집된 문체로 써낸 그의 단편은 때론 긴 작품을 읽은 것 같은 여운을 남기는데 『알레프』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작자의 인간의 운명에 대한 관심이다.<sup>77)</sup>

72) Borges Jorge Luis 他, 「ボルヘスは語る-アルゼンチンの世界的文学者(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 『朝日ジャーナル』 22(9), 1980, 85-86面.

73) J.L.보르헤스 木村栄一, 『語る보르헤스 書物・不死性・時間ほか』, 岩波書店, 2017, 29面.

74) 홀헤·롤리스·보르헤스 木村栄一訳, 『보르헤스, 오랄』, 白馬書房, 1987, 139面.

75) 野谷文昭 編, 『日本の作家が語る 보르헤스와わたし』, 岩波書店, 2011, 28面.

76) 辻邦生, 「보르헤스斷章」, 『ラテンアメリカ文学』 15(1), 集英社, 1984, 2面.

직경 1~2센치 정도 크기의 구슬에 무한한 우주가 담겨있는 「알레프」, 명사 자체가 존재 하지 않는 가공의 우주를 그리고 있는 「틀린, 우크바르, 오르비스 테르티우스」, 『오디세이』의 저자 호메로스 불사의 물을 마신 주인공을 등장시킨 「죽지 않는 사람」, 추첨으로 지배된 나라의 필연과 우연을 그린 「바빌론의 추첨」 등 그의 작품은 해석 자체가 어렵다. 또한 많은 부분이 차연 되어 있어 소설의 흐름을 따라가기도 힘들다. 보르헤스의 문학의 어려움에 대해 노아는 “설명적 문장이 적고 제목 그 자체가 압유”<sup>78)</sup>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나카무라는 “보르헤스 문학은 필요한 것을 배제하고 응축”<sup>79)</sup>되었기 때문에 독자가 새로운 발견을 하기는 용이하지 않다고 말한다. 작가 시마다(島田雅彦)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보르헤스적 미로에 헤매는 쾌락”<sup>80)</sup>을 느끼는 독서를 권유한다. 이렇듯 일본에서 보르헤스 문학은 환상문학이 함의하듯 매력적이면서도 높은 문해력이 요구됐다.

일본문인 사이에는 그 문학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많았다. 작가 핫토리 타다시(服部正)는 보르헤스문학은 “19세기의 양질의 서구문학의 교양과 인용을 포함한 세세한 문장표현에 감동”<sup>81)</sup>한다고 했으며, 비교문학자인 요모다 이누히코(四方田彦彦)는 “보르헤스가 중요한 것은 장르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작품”<sup>82)</sup>이라고 했다. 프랑스문학자 시미즈 토오루(清水徹)는 “박식이 정묘하게 짜여져 환상에 도달하고 있으며 이는 보르헤스의 세계를 성립한다.”<sup>83)</sup>고 하였으며, 시인 다카하시 무츠오(高橋睦郎)는 “20세기 후반 대략 반(反)시(詩)적 시대에 보르헤스라는 시인=만드는 사람의 원형 같은 인물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이 기적”<sup>84)</sup>이라는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일반 독자는 보르헤스의 문학을 이해하기 어려워 소구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었다. 그의 환상적, 형이상적 문학의 상징성은 그의 ‘환상’의 본질을 자세히

77) 볼헤스,篠田一士,内田吉彦,木村栄一,野谷文昭,鼓直訳,『集英社ギャラリー「世界の文学」19ラテンアメリカ』,集英社,1990,133面.

78) 野谷文昭 編,『日本の作家が語る ボルヘスとわたし』,岩波書店,2011,7面.

79) 위의 책, 8面.

80) 島田雅彦,「ボルヘスの効用」,『朝日新聞』,1985.6.27,夕刊 7面.

81) 澁澤龍彦他,『ボルヘスの世界』,国書刊行会,2000,156面.

82) 위의 책, 154面.

83) 澁澤龍彦他,『ボルヘスの世界』,国書刊行会,2000,154面.

84) 위의 책, 152面.

살펴보는데 장애로 작용했다. 그가 그린 환상은 현실과 이상 사이의 낙차를 그린 수단이었다. 그는 독자가 ‘환상’에 가린 현실을 인식해 주길 원했다. 당시 중남미 소설이 유명해진 것은 국가의 정치 사회문제, 개인소외를 고발하는 문학을 다루지 않고 깊이 있는 ‘미학적’ 구성을 통해 본질적 문학을 그리려고 했기 때문이다. 보르헤스의 경우 미학적 구성으로 철학, 신학, 고전, 차연을 통해 현실에 도달하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외국 현지사정에 어두운 독자가 보르헤스의 ‘환상’에 가려진 현실까지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보르헤스의 문학은 비정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 경향이 있다.

19일 당국은 한 건의 밀고를 받았다. 같은 날 해질 무렵 야로미르 홀라딕은 체포되었다. 그는 블타바 강 맞은편 제방에 있는 흰색 격리 감옥으로 끌려갔다. 그는 계슈타포가 기소한 혐의 중 단 하나도 반박할 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 성은 야로슬라브스키였고, 그의 몸에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죄명에 관한 그의 연구는 유대교를 주제로 하고 있었고, 그는 독일의 오스트리아 합병에 반대하여 항의 서명을 한 사람 중의 하나였다.<sup>85)</sup>

그 직책을 수행하는 것은 내게 즐거운 일이 아니었지만, 나는 결코 태만의 죄를 범하지 않았다. 비겁한 사람은 칼 속에서 그런 비겁함을 증명한다. 반면에 자비로운 사람, 즉 신심이 돈독한 사람은 감옥과 타인의 고통 속에서 시험을 받고자 한다. 나치즘은 본질적으로 도덕적 행위, 그러니까 이미 부패한 노인에게 옷을 벗겨 새사람에게 옷을 입히려는 행위이다. 지휘관들의 고향 소리와 아우성이 난무하는 전쟁터에서 그런 변환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나 음험한 동정심이 옛날의 사랑스러운 일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빌어먹을 감방에서는 그렇지 않다.<sup>86)</sup>

그렇다고 해서 그의 문학을 비정치적 환상문학으로만 인식할 수 없는 것은 그의 삶과 정치를 그린 단편이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인용글은 『픽션들』의 「비밀의 기적」로 독일 군대가 프라하를 침범했을 때 ‘오스트리아 합병’을 반대한 유대인의 피가

85) 보르헤스, 송병선 역, 「비밀의 기적」, 『픽션들』, 민음사, 2011, 186면.

86) 보르헤스, 송병선 역, 「독일 레퀴엠」, 『알레프』, 민음사, 2012, 108면.

호르는 자로미르 홀라디이 사형선고를 받는 내용이다. 두 번째 인용글은 『알레프』의 「독일 레퀴엠」으로 다음날 사형을 당하는 독일군 장교 오토 디트리클을 통해 독일의 승리와 패배, 독일 파시즘의 당위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직책을 수행하는 것은 내게 즐거운 일이 아니었지만, 나는 결코 태만의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예루살렘의 법정에서 선 전범 아이히만이 ‘나는 공무원으로서 일을 제대로 수행했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보르헤스는 「비밀의 기적」에서 파시즘 대두, 독일 나치의 만행, 「독일 레퀴엠」에서는 나치의 멸망으로 이어지는 연결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보르헤스는 정치성, 사회성이 전혀 없는 작가로 단정 지을 수 없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러시아 혁명, 세계 공황 등 20세기의 굴곡진 역사를 겪은 작가였으며 아르헨티나에서는 근대화와 전통의 대립, 도시와 농촌의 대립이 극심한 했던 시기를 보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아르헨티나가 무솔리니와 파시즘을 지지하는 것을 비난했고, 더러운 전쟁(Dirty War)이 끝난 뒤에는 재판에 참여하여 군사 정부의 장군들이 납치와 고문을 자행하고 수많은 반대 인사를 살해한 범죄자들과 비난했다.<sup>87)</sup> 또한 그는 페론 정권을 반대하는 작가들의 모임인 아르헨티나 작가회의 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sup>88)</sup> 그런데 보르헤스는 칠레 산티아고를 방문했을 때 ‘공산주의로 많은 나라들이 구제되고 있다는 발언’<sup>89)</sup>도 했으며 ‘유럽 쿠데타로 아옌데 정권을 붕괴시키고 권력을 장악한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가 수여하는 훈장을 받아’<sup>90)</sup> 주위를 놀라게 했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모순된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그가 엄연히 정치적 사안을 다루었다는 것이 확연하다.

방일 시 보르헤스는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했지만, ‘환상작가’라는 틀에서 벗어나 보르헤스의 정치적 관점을 미리 인지하고 세세히 알고 질문했다라면 문학작품을 논하듯 그가 가진 정치 감각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미국 방문에서는 그게 가능했다. ‘방일’이 가진 사회적 이벤트는 연구자들이 해당 문학자에 가진 기존의 이미지를 고착화하는 장이 아니다. 방일은 초청자가 질문을 통해 문학자의 다른 면모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이자 진짜 보르헤스를 만날 수 있는 연구회인

87)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윌리스 반스톤, 서창렬역, 『보르헤스의 말-언어의 미로 속에서, 여든의 인터뷰』, 마음산책, 2015, 332면.

88) 김홍근, 『보르헤스 문학전기』, 숲, 2005, 263면.

89) 「海外文化 波紋を呼んだボルヘスの政治的発言」, 『朝日新聞』, 1977.1.28, 夕刊 5면.

90) 윤지하, 「보르헤스와 정치」, 『중남미연구』19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2000, 197면.

셈이다. 그래서 심도 있는 소통을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공부와 준비, 협의가 요청된다.

요컨대 일본지식인은 정치나 사생활이 아닌 문학을 매개로 보르헤스와 대화할 수 있었다. 1979년 대담에서 언급한 「바벨의 도서관」, 『ボルヘスの世界』, 『日本の作家が語る ボルヘスとわたし』 두 책은 「바벨의 도서관」을 향한 일본 문인의 관심을 드러낸다. 프랑스에서 사르트르 이후에 누보 로망이 출현한 것처럼 새로운 문학관과 문학적 실험을 고민하던 문학자에게 보르헤스도 발견된 것이다. 이런 정신은 이 이후에도 이어졌다. 가령 작가 히라노 게이치로(平野啓一郎)는 보르헤스문학은 “2000년대 이후에는 더 이상 읽히지 않는 문학이지만 문학가가 되기 위해 읽는 문학”<sup>91)</sup>이라고 했다. 또한 2000년대에 창립된 ‘보르헤스회’(ボルヘス会)<sup>92)</sup>는 그를 끊임없이 회고하고 재인식하는 장(場)이었다.

살펴본 것처럼 보르헤스는 일본에서 불교, 선을 중시하는 환상작가라는 이미지로 굳어졌지만, 그의 작품에는 정치를 이야기하는 「비밀의 기적」, 「독일레퀴엠」<sup>93)</sup>이라는 단편이 있다. 그가 참여 작가<sup>94)</sup>는 아니지만 환상을 통해 사회를 그린 작가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 또한 보르헤스를 이해하는 것에 큰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러한 점이 아직도 대중화되지 않은 채 고전이자 세계문학으로서 그의 문학이 소비되고 잊혀가고 있다.

---

91) 野谷文昭 編, 『日本の作家が語る ボルヘスとわたし』, 岩波書店, 2011, 112면.

92) 라틴아메리카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애호가들이 보르헤스회를 발족하고 30일 오후 2시부터 도쿄 릿쿄대학에서 제1회 대회를 연다. 작년 탄생백주년을 기념한 연구자, 문학자, 판화가등이 중심이 되었다. 당일에는 보르헤스회의 회장인 릿쿄대학의 노야 후미야키(野谷文昭)와 인사 후 작가 가와카미 히로미(川上弘美)의 기념강연이 있다. 「ボルヘス会が発足大会 開く 30日、東京・立教大で」, 『朝日新聞』, 2000.9.22, 夕刊 15면.

93) 윤지하는 「보르헤스와 정치」에서 보르헤스의 정치적 성향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을 「독일레퀴엠」과 「바벨로니아의 추천」을 예로 들면서 그의 단편적인 정치활동이 나름대로의 정치적 성향을 구축했다는 것을 논한다. 윤지하, 「보르헤스와 정치」, 『중남미연구』 19(1),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2000, 183~196면.

94) 리타 길버트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참여문학’에 대해 “나는 반공산주의자, 반히틀러주의자, 반페론주의자 등이었습니다만 나의 견해들은 순수한 것인데 그 때문에 피상적일 수가 있어서 내 작품 속에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김춘진, 『보르헤스』, 문학과지성사, 1996, 334면.

## V. 나가며

일본에서 보르헤스의 작품이 번역되면서 일본인은 낯선 아르헨티나 작가를 접할 수 있었다. 『전기집』, 『알레프』 이후에도 『브로디의 보고서』, 『모래의 책』, 『꿈의 책』 등 번역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왔고 방일 전에는 그의 구술 강연을 모은 책 『보르헤스 오랄』이 간행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일본에서 보르헤스 문학이 알려지고 소비되고 있는 가운데 그가 1979년 일본을 방문했다. 국제교류기금을 통해 보르헤스의 방일은 독자보다는 일본지식인들 사이에서 더 큰 반응을 낳았고 대담 또한 그의 문학을 연구하는 번역자, 연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보르헤스 문학의 번역자, 연구자들은 제한적이지만 그의 일본인식, 문학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방일 후에도 일본에서 보르헤스에 대한 기사는 끊이지 않았다. 일본 미디어는 보르헤스의 일본어에 대한 관심, 비서였던 마리아 고타마와의 결혼, 타계소식<sup>95)</sup>까지 빠짐없이 보도했다. 보르헤스 역시 방일 후 일본을 주제(“El go”, “Shinto”, “El forastero”, “Diecisiete haiku”, “Nihon”)로 한 5개의 시를 발표하면서 일본에 대한 여전한 관심을 표현했다.<sup>96)</sup> 이는 방일 후 일본과 보르헤스의 관계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보르헤스의 방일 후 아르헨티나인들의 ‘일본’인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일본문학 연구자 기에르모는 “보르헤스의 일본 여행, 일계여성 마리아 코다마와의 결혼, 민주 정치의 부활이 아르헨티나의 사람들의 일본문학에의 관심을 활성화”<sup>97)</sup>했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Editorial Universitaria 출판사는 Colección Japón<sup>98)</sup>(1998)을 간행했다. 또한 시리즈 제목에 ‘일본’을 붙이고 일본에 관한 내용을 소개했다. Colección Japón은 Guillermo Gasió의 *Borges en Japón, Japón en Borges*, 이토 테이지(伊藤ていじ)의 *Arquitectura tradicional de Japon*(일본의 민가), 오오키타 사부로(大来佐武郎)의 *De aquí para allá: autobiografía*(나의 이력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여러 가지 분야의 책과 함께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노벨상을

95) 「アルゼンチンの詩人・作家 ボルヘス氏死去」, 『朝日新聞』, 1986.6.15, 朝刊 23面.

96) Santiago J. Martín Ciprián, 「About five poems from the book The Cypher-Borges and Japan」, 『비교일문학』 18,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2005, p.25.

97) 野谷文昭, 「日本におけるアルゼンチン文学の受容」, 『日本アルゼンチン交流史—はるかな友と100年』, 日本アルゼンチン協会, 1998, 307面.

98) *Colección Japón*, Editorial Universitaria de Buenos Aires, 1988.

수상(1968)하며 강연한 『아름다운 일본의 나』의 스페인어 번역인 *El bello Japón y yo*(1987)과, 오오시마 히토시(大嶋仁)의 *El pensamiento japonés*(일본인의 사고, 1987)도 출판되었다. 이들 작품 또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출판된 것이며 일본과 일본의 문학을 알기 위한 아르헨티나의 관심을 보여준다.

비록 보르헤스의 방일이 연구자를 중심으로 한 대답으로 일본 독자에게는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지만 방일 후 아르헨티나에서는 일본 관련 서적을 다양하게 출판하면서 아르헨티나 일반 독자에게 ‘일본’에 다가가는 기회를 마련한 셈이다. 방일은 일방적인 교류가 아니라 쌍방향적인 교류로 보르헤스 문학을 알기 위한 일본도, 일본을 알기 시작한 아르헨티나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일본-아르헨티나의 문화교류에 기여했다.

이러한 의미 있는 교류의 초석이 된 1979년 방일은 세계적인 작가를 초대하려는 국제교류기금과, 동양과 불교를 알고 싶었던 보르헤스의 욕망과 맞물려 이루어졌다. 그는 주로 절, 신궁을 돌아다니는 사적여행을 했고 공식적인 행사는 단 1번으로 조치대학에서 이루어진 토론회였다. 그럼에도 그의 활동을 조정한 것은 번역가나 작가들이 아닌 국제교류기금이었고 그는 짜여진 스케줄대로 일정을 소화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1984년에 일본을 개인적으로 방문했을 때에는 1979년과는 달리 마리아 코다마와 자유 시간을 만끽하며 일본을 즐겼다. 마리아 코다마는 1979년 보르헤스는 “그다지 흥미가 없는 곳에 안내할 때를 싫어했다”<sup>99)</sup>고 밝혔다. 일본국제교류기금은 세계적 작가에게 ‘일본’을 충분히 보여줘서 그가 아르헨티나로 돌아가서 우호적으로 일본 소개를 해주기를 바랐지만, 보르헤스 자신은 자유롭게 여행하며 스스로 일본을 느끼기를 원했다. 1984년 보르헤스의 방일에 대해 시노다는 “出雲(이즈모, 시마네현)을 방문했고 거의 맹인이었지만 그는 일본을 피부로 느끼고 싶어 했다”<sup>100)</sup>고 말했다.

일본을 잘 모르는 외국인에게 국제교류기금의 스케줄은 일본을 제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지도’였고 연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보르헤스에게 일본 방문은 더없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그는 불만을 표출하지 않고 그대로 스케줄을 따랐던 것이다. 이

99) 「インタビュー マリア・ユダマ ボルヘスと私と日本人の父と」, 『すばる』 36(2), 集英社, 2014, 190面.

100) ボルヘス, 篠田一士訳, 『砂の本』, 集英社, 1995, 270面.

스케줄에 아쉬운 점은 바로 대중독자와의 대면, 미디어 노출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출연 등 미디어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면 훨씬 다양한 보르헤스의 면모를 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이지만 그와 사적으로 이루어진 이야기들은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1979년 그와 대담한 스키야마, 기요미즈, 나카무라 등은 보르헤스에게 정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질문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보르헤스가 듣기 좋고 답변하기 쉬운 질문을 일방적으로 하고 보르헤스는 까다로운 질문(정치)을 미리 차단한 채 대답할 뿐이다.<sup>101)</sup> 또한 보르헤스는 1984년 사에키와 중고문학자인 아키야마 켄(秋山虔)과 동석했을 때 그에게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 『마쿠라소시(枕草子)』에 대해 이야기하자 읽은 지 너무 오래되었다고만 대답한다.

리타 길버트: 당신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르헤스: 나는 보수당에 속합니다. 그 이유를 당신에게 설명하겠습니다. 나는 대통령 선거 며칠 전에 보수당에 입당했습니다. 나는 항상 급진적이었지만 그것은 나의 가족의 전통에 의한 것입니다. 내 외할아버지 아세베도는 알렘 Alem의 절친한 친구였고, 따라서 신념 혹은 판단이 아닌 의리 때문에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 후에 나는 급진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과 의기투합하려고 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중략)… 나는 다소간 민주주의 편에 있었고 우선은 페론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페론 정부는 그 사실에 대해 아무런 의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sup>102)</sup>

그런데 다른 장소, 시간에서 그는 다른 태도를 취했다. 인용의 인터뷰는 1994년 스페인어판 『라이프』지의 리포터 자격으로 보르헤스와 리타 길버트(Rita Guibert)의 대담 내용<sup>103)</sup>이다. 10년 이상이라는 시간차가 있기는 하지만 그는 정치적 질문에

101) 보르헤스의 『겐지모노가타리』에 듣고 싶어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자 “무라사키 시키부도 세이쇼 나곤을 읽은 지 꽤 오래되었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일본문학을 읽은 추억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강한 관심을 드러낸다고는 할 수 없다. “현재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정치는 흥미가 없습니다. 노 폴리티क्स”라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했다. 佐伯彰一, 「ボルヘスとの一夜」, 『旅人への贈り物—ボルヘス日本滞在誌』, 法政大学出版局, 1982, 164~165面.

102) 김춘진, 『보르헤스』, 문학과지성사, 1996, 332면.

103) 강태진, 「한국 문학잡지에 나타난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관련 문학 수용상황」, 『스페인어문학』

대해 망설이지 않고 대답한다. 자신은 ‘가족의 전통에 따라 보수당’에 입당했지만 ‘민주주의자’, ‘페론반대자’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일본에서의 태도와 확연히 다르다. 일본의 질문자의 준비 부족 때문일까?

나카무라는 “일본에 온 것이 당신의 작품에 영향을 미치는가?”<sup>104)</sup>, 우치다는 “메이지신궁에서 어떤 영감을 떠올렸는가?”<sup>105)</sup> 스기야마는 “동양에 어떤 힘이 있는가?”<sup>106)</sup> 라는 질문을 했다. 자신의 문학을 제외한 질문을 받지 않는 보르헤스와, 일본의 영향과 위상을 확인하려는 일본 측의 사이에서 그의 문학은 ‘일본에 관심 있는 작가’이자 ‘환상작가’라는 고정된 이미지를 더욱 구축하게 된다.

1970년대 경제성장과 더불어 세계무대에서 일본은 문화적 선진국을 꾀하려 했다. 1968년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일본문학이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다는 증표가 되었다. 그렇지만 일본지식인들은 일본문학의 사소설이 가진 리얼리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의 참조물로 환상문학 작가인 보르헤스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사회 역시 단카이세대(団塊世代)에서 시라케 시대(しらけ世代)로 넘어 갔고<sup>107)</sup> 전후문학이 거의 읽히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누보로망의 실험적 기법이 그랬듯이 난해한 문학은 일반 독자에게 엄청난 문해력을 요청하기 때문에 소구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보르헤스의 문학도 예외가 아니지만 시간이 흘러 근대문학의 종언과 함께 포스트모더니즘의 맥락에서 재발견될 수 있었다. 좌파의 정치적 성격이 강한 라틴아메리카의 작품들도 다수 수용되는 문화사적 배경에서 보르헤스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보수성을 띤 포스트모던 문학자로 수용되고 그 문학적 새로움을 흡수하려는 일본 문인들에게 주목받았던 것이다. 일본 신좌익의 혁명운동도 퇴조되고 탈정치화가 진행되던 일본에서 80대의 장애인 보르헤스가 동양적 선이나 불교에 관심 갖는 작가로 주목된 것도 자연스럽다. 그러면서 정치적 성향이 있는 그의 단편도

---

91, 한국스페인어문학회, 2019, 118면.

104) 홀헤·롤리스·볼헤스, 「対談 旅人への贈り物」, 『国際交流』23号, 国際交流基金, 1980, 10面.

105) 内田美恵, 「アレフの午睡」, 「ボルヘスとの一夜」, 『旅人への贈り物—ボルヘス日本滞在誌』, 法政大学出版局, 1982, 73面.

106) 杉山晃, 「ボルヘス氏に聞く」, 『旅人への贈り物—ボルヘス日本滞在誌』, 法政大学出版局, 1982, 56面.

107) 무라카미 하루키는 시라케세대에 대해 “개인주의적, 방어적, 사고형태가 수평적이며 경제적인 풍요로 등장한 일본인”이라고 언급했다. 村上春樹, 『村上春樹 雑文集』, 新潮社, 2015, 248面.

주목을 받지 못했다.

보르헤스를 마주한 일본지식인의 일반적인 질문은 역으로 ‘비판적 대화’가 쉽지 않은 일본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하지만 방문자의 특수성도 작용하고 있다. 보르헤스는 시각장애자다. 대담 장면은 장애인과의 대화법의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다. 그러면서 ‘시각장애자가 쓰는 소설의 의미, 가능성, 가치’ 등을 보르헤스에게 질문하지 못하고 답변 받지 못했다. ‘보지 못하는 자’가 쓰는 작품은 ‘보이는 자’가 쓴 환상문학과 산출 과정이 다를 수밖에 없다. 오히려 보르헤스가 일본인은 사생활을 묻지 않는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이처럼 ‘예의’의 문화적 차이가 문화적 장벽을 쌓기도 했다. 우리는 질문을 통해 알아가기도 하지만 질문의 부재를 통해 사회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보르헤스의 방일은 보르헤스와 아르헨티나에 일본을 알리고 일본에 라틴아메리카를 좀 더 넓게 인식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문화사의 국면이었다.

## 참고문헌

『朝日新聞』, 『読売新聞』, 『朝日ジャーナル』, 『海』, 『ユリイカ』, 『すばる』

보르헤스, 송병선역, 『픽션들』, 민음사, 2011

\_\_\_\_\_, 송병선역, 『알레프』, 민음사, 2012

볼헤스 篠田一士訳, 「ボルヘスー伝奇集/不死の人」, 『世界文学全集』 34, 集英社, 1968

\_\_\_\_\_, 「ボルヘスー伝奇集/エル・アレフ/汚辱の世界史」, 『世界の文学』 9, 集英社, 1978

\_\_\_\_\_, 『世界文学 不死の人』, 白水社, 1980

\_\_\_\_\_, 『伝奇集ーラテンアメリカの文学』, 集英社, 1984

볼헤스, 篠田一士, 内田吉彦, 木村栄一, 野谷文昭, 鼓直訳, 『集英社ギャラリー 「世界の文学」 19 라テンアメリカ』, 集英社, 1990

볼헤스 篠田一士訳, 『砂の本』, 集英社, 1995

볼헤스, 木村栄一訳, 『エル・アレフ』, 平凡社, 2005

J.L.볼헤스, 中村健二訳, 『汚辱の世界史』, 岩波書店, 2012

J.L.볼헤스 木村栄一訳, 『語る볼헤스 書物・不死性・時間ほか』, 岩波書店, 2017

김춘진, 『보르헤스』, 문학과지성사, 1996

김홍근, 『보르헤스 문학전기』, 솔, 2005

민원정, 『보르헤스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카발라신비주의』, 한국학술정조, 2007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박거용역, 『보르헤스, 문학을 말하다』, 르네상스, 2011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윌리스 반스톤 서창렬역, 『보르헤스의 말-언어의 미로 속에서, 여든의 인터뷰』, 마음산책, 2015

木村栄一, 『ラテンアメリカ十大小説』, 岩波書店, 2011

村上春樹, 『村上春樹 雑文集』, 新潮社, 2015

今福龍太, 『ボルヘス『伝奇集』: 迷宮の夢見る虎』,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9

野谷文昭 編, 『日本の作家が語る ボルヘスとわたし』, 岩波書店, 2011

杉山晃, 『ラテンアメリカ文学バザール』, 現代企画室, 2000

ホルヘ・ルイス・ボルヘ스 他, 佐伯彰一・神吉敬三訳, 『旅人への贈り物ーボルヘス日本滞在誌』, 法政大学出版局, 1982

ジェイムズ・ウッダール, 平野幸彦訳, 『ボルヘス伝』, 白水社, 2002

Alberto Manguel, *WITH BORGES*, Telegram, 2006

- 강태진, 「한국 문학잡지에 나타난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관련 문학 수용상황」, 『스페인어문학』 91, 한국스페인어문학회, 2019
- 김형민, 「보르헤스와 종교-『픽션들 Ficciones』을 중심으로」, 『중남미연구』 19,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2000
- 박종혁, 「데리다와 보르헤스의 글쓰기」, 『중남미연구』 19(2),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2000
- 양아람, 「1966년 장 폴 사르트르(Jean-Paul Sartre)의 일본 방문과 일본의 사르트르 수용」, 『대동문화연구』 108,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9
- 윤지하, 「보르헤스와 정치」, 『중남미연구』 19(1),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2000
- 이영조, 「아르헨티나의 민주화와 경제개혁 지배연합의 변화를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 8,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1995
- 이종득, 「보르헤스의 환상문학- 서사구조에 나타난 자아의 존재 양태와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학이론-」, 『인문과학연구』 7,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2
- Santiago J. Martín Ciprián, 「About five poems from the book The Cypher - Borges and Japan -」, 『비교일문학』 18,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2005
- Hagamoto, Koichi, 「BORGES AND JAPAN」, Chasqui(44), revista de literatura latinoamericana, 2015

## Borges(1899~1986)'s Visit to Japan 1979 and Cultural Exchange, Translation Acceptance

Yang, Ah-lam

The article seeks to examine the social and cultural significance of the Argentine writer Borges' Japanese translation and his visit to Japan in 1979. Borges literature began to be translated in the late 1950s in Japan and began to be incorporated into the complete collection, facing Japanese readers. Borges' visit to Japan, known in Japan as the Fantastic and mysterious writer was the biggest cultural event to understand not only his literature but also his Japanese perceptions. The Japan Foundation, which invited Borges, organized the 29days program mainly focusing on rest trips in consideration of Borges, who was not well-seen. His visit to Japan was an acceptance of fantastic literature and an opportunity to further popularize Argentine and Latin American literature. In short, this article is a study on translation and cultural history to examine the cultural and historical significance of cultural exchanges and expansion of Japan's acceptance of Borges' translation through the invitation project.

Key Words : *Ficciones*, Buddhism, Latin American Literature, Blindness, Politics

